

# 건강한 오늘,\* 기대되는 내일을 위하여!

## (주)풀무원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풀무원(이하 풀무원)의 미션은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먹거리는 안전한 일터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은 풀무원을 안전보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게 한다.

글 문예진 사진 김지원





## 임직원부터 시작하는 ‘바른’ 미션

풀무원은 신선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생산뿐 아니라, 친환경식품 유통, 급식, 컨세션 등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91년 미국 진출 이후 중국과 일본, 베트남에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K-Food 세계화도 이끄는 중이다.

미션 실현을 위한 풀무원의 행보는 안전보건경영에서부터 비롯된다. ESH(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담당 안전보건기획팀은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내부 구성원 및 협력사 직원들에게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다. 또한 유해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보건 선형지표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도 안전

보건기획팀의 몫이다.

“재해율이라든지 강도율이라든지 안전보건 지표들은 낮아질수록 좋은 것들이잖아요. 직접 관리하는 안전보건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은 운영이 잘 되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크게 부각되기 마련이다. 안전보건기획팀은 안전보건경영의 지속적인 개선 지표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며 안전보건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직원들과 양방향 소통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은 안전보건기획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문이다.



### 협력사까지 넓은 보건관리 영역

“최근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중독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습니다”

컨설팅 참여 배경에 대해 흥은기 상무는 최근 산업현장의 흐름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 사전 파악’을 언급하며, 이는 ‘회사의 당연한 책임’이라 덧붙였다. 풀무원의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풀무원식품(주) 두부공장(이하 음성공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사와 협력사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와 현황 파악, 관리상태 점검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효과적인 컨설팅 결과 도출을 위해 자사 조직원 위주로 관리하고 있던 안전보건 관리 범위를 협력업체

와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모든 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실제로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수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결과 음성공장에서 큰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음성공장은 별도의 화학물질 저장소 지정, 정확한 수량 파악 및 MSDS 게시 등 상시 사용 물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화학제품 사용 위험성 인식도 역시 ‘높음’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협력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자체 화학물질 관리 체계 보완과 구매담당자 지정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했다.

“일련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잘 관리하고 있던 부분을 한 번 더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잘 관리할지, 그리고 놓치고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관리 체계 보완과 구축에 컨설팅 결과를 잘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 정량적 지표와 선제적 예방

풀무원의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 풀무원은 10월말까지 컨설팅 결과와 이를 통한 구체적인 여러 개선사항들을 현장에 적용해보며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기획팀은 이후 정리된 결과들을 음성공장을 넘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확대와 전파를 위해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더 발굴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숫자로 보여줘야 공감대를 얻고 추진하기 위한 드라이브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결과 지표뿐만 아니라 선행지표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식품 관리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식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강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홍은기 상무는 “기후변화 흐름에 맞춘 화학물질 평가와 관리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풀무원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장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괜찮다고 하더라도 뭐든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오늘과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 대비에 있어서도 이번 컨설팅 과정과 결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 Mini Interview

### “안전보건은 기업의 의지입니다”

(주)풀무원 홍은기 ESH담당/상무

#### Q. 풀무원 안전보건기획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풀무원 안전보건기획팀은 풀무원 가치 체계를 실행하는 조직입니다. 풀무원 내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들을 기획하고 추진하죠. 제조, 물류, 급식 등 풀무원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영역에서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건강한 오늘과 기대되는 내일’을 만드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결국 안전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할 것인지 늘 고민합니다. 최근에는 안전문화 측정과 진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고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현장 관리자, 실무자, 노동자 등 인터뷰를 진행하며 현황 파악과 안전문화 진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안전보건은 기업의 의지이기 때문에 전 직급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